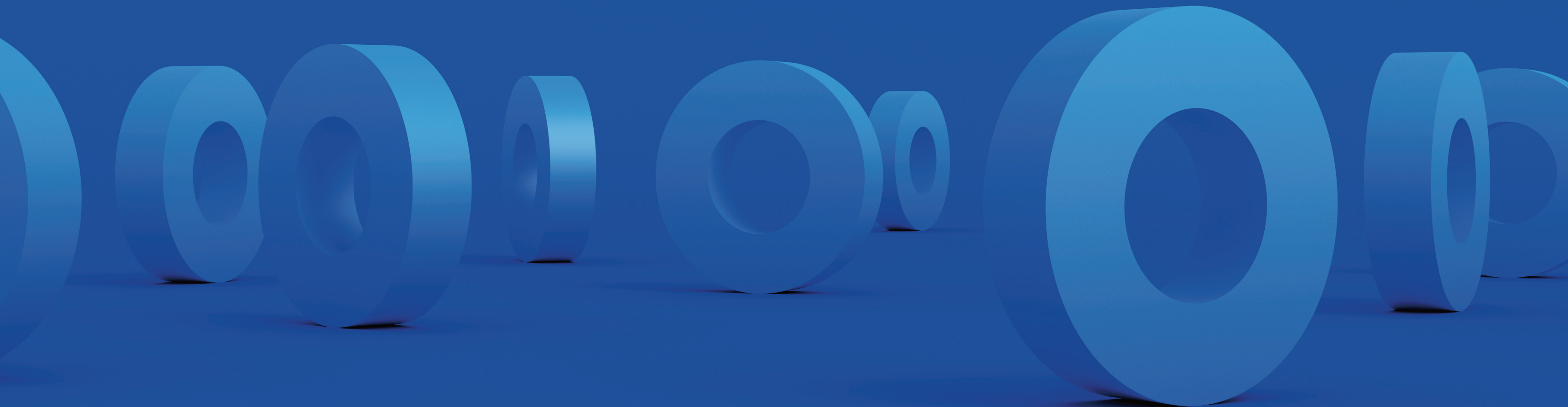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부 .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 268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창립정신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동시에 윤리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지평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지향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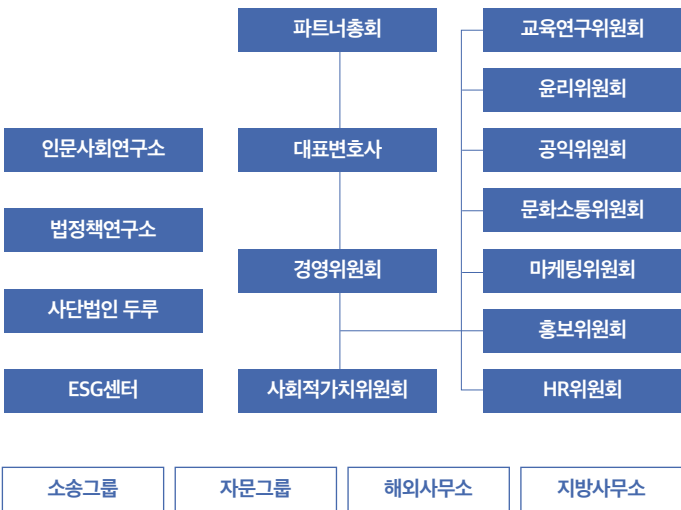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명칭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본사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대표변호사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설립일	2000년 4월 3일

ORGANIZATION

지평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지평은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여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9-2020년 기간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에 주요한 시사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유한 법무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변호사들의 파트너총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파트너총회에서 선출된 경영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가 파트너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경영위원	양영태, 김상준, 사봉관, 이소영, 이행규, 정원
사회적가치위원회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김상준, 김영수, 서준희, 황인영, 권주연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설 · 부동산 / 금융 · 증권 · 보험 /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 · 소비자분쟁 / IP · IT / 해상 · 항공 · 형사 / 헌법 · 행정 ·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 조세 / 노동 / 도산 / 공정거래 / 언론 / 국제중재 / 상사 · 민사 / 의료 **자문(회사)** M&A / 회사법 · 기업자문 / 기업지배구조 / 해외투자 / 국제거래 / 도산 · 구조조정 / 조세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 IP · IT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노동 / 공공정책 / ESG **자문(금융)**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 금융 · 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 · 항공기금융 / 해외금융 / 금융규제 · 금융회사 / 사모펀드 · PE / IPO · 자본시장 / SOC **해외**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SOCIAL IMPACT

지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0여 명의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인문학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축으로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2012년 설립을 조력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의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며, 노동인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법률가 및 노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밀 아카데미, 해밀포럼, 노동판례연구 등의 교육과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1년 사단법인으로 지평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는 법률 전문성과 정책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연결하여 실사구시의 법, 인문적 기초 위에 선 법,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MEMBERS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¹⁾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평의 전체 구성원²⁾ 468명 중 전문가는 268명이고, 직원은 200명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되는데 지평은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가 88명, 소속변호사가 112명입니다(지평은 소속변호사를 단순한 피용자가 아닌 장래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예비구성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격국가 별로 나누면 한국변호사가 200명, 외국변호사는 49명입니다.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만큼 지평에는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국가도 다양합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로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분을 '전문가'라고 표시합니다.
2) 보고서에서는 지평의 모든 전문가와 직원을 합쳐 '구성원'이라고 표시합니다.

GLOBAL REACH

지평은 일찍부터 해외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한국의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평은 11개 국내 및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투자·진출, 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도 오랫동안 정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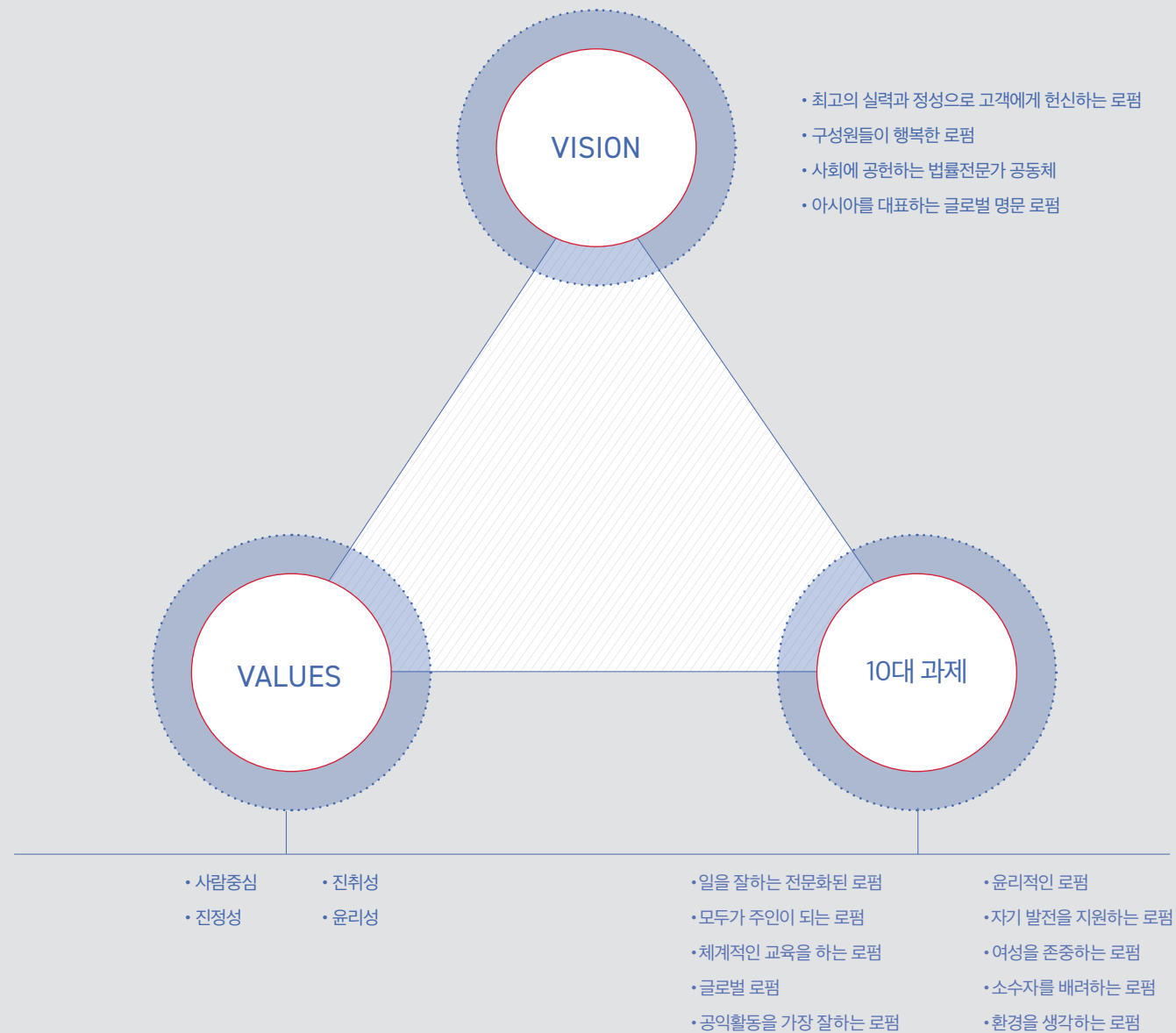


전체 구성원,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명)

전문가	한국변호사	구성원변호사	88	268
		소속변호사	112	
		외국변호사	49	
	기타 전문가	한국회계사	2	
		외국회계사	2	
고문 · 자문 · 전문위원			15	200
직원				
지평의 구성원 합계				
				468

02

지평의 비전과 가치



03

2020 경영 KEYWORD

행복한 스물, 담대한 도전

“스물이 된 지평을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평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담대한 도전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뿐인 로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지평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평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창립기념일 라이브 방송’, ‘지평 20돌, 20주, 20인 릴레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 지평의 20년을 돌아보고 구성원과 소통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사회적가치 경영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를 위한 노력

지평의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하며,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조직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콤팩트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UN SDGs 17가지 목표를 사내에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

임성택 대표변호사(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윤리위원회 위원장), 양영태 대표변호사(경영위원장), 김상준 변호사(경영위원), 김영수 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서준희 변호사(HR위원회), 황인영 변호사(환경실천소모임), 권주연 차장(경영지원팀)

사회적 과제 실천

지평은 내부 공모를 통해 2020년 사회적 과제로 '지역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 우리함께'를 선정하고,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하는 피해자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지원, 영천시장 상인회와 함께 지역상권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기부 및 물품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지평은 2020년 9월 ESG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의 ESG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하라인'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9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사단법인 두루는 제1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개최하여 새내기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평은 2020년 난민인권센터에 법률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였고, 지평이 참여하고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취약계층과 관련한 법정책 검토와 법률지원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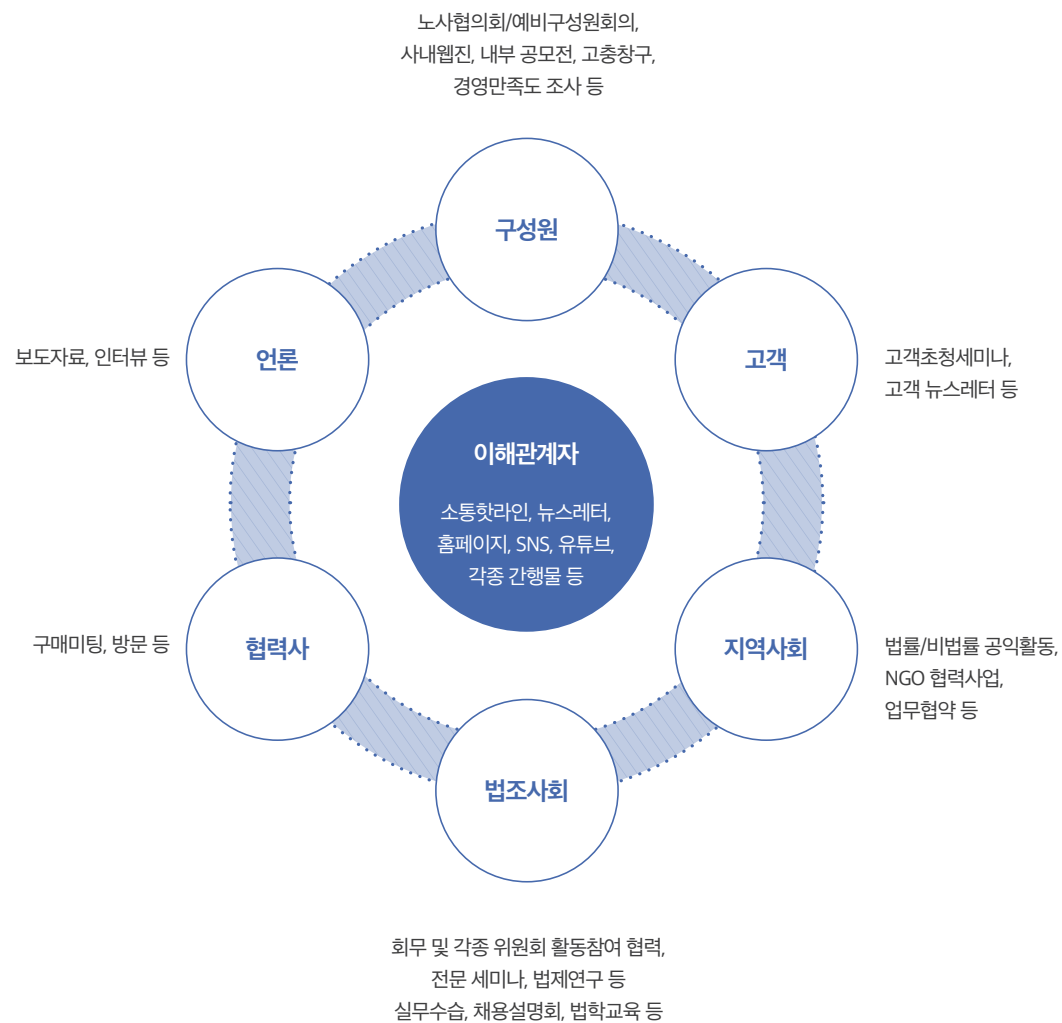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지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관심 이슈
구성원	국내외 모든 사무소의 임직원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직원 등)	-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법조윤리의 준수
고객	지평의 송무,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지역사회	지평의 사무소가 있는 지역(서울, 순천, 부산, 상하이, 호치민시티, 하노이, 자카르타, 프놈펜, 비엔티안, 양곤, 모스크바)과 그 주민, 단체, NGO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 그린오피스 정책
법조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 변호사 단체 - 법원, 검찰 등 실무가 - 법학 교수, 연구자 등 학계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법조윤리의 준수
협력사	- 예비 법률가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실무수습 참여자	-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구성원 역량 개발 및 교육
언론	지평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도하거나 지평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법조윤리의 준수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06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구성원

지평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그룹별 인터뷰의 형식으로 세대별 다양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변동사항은 구성원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되며,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웹진, 사내소식
- 파트너총회, 노사협의회, 예비구성원회의, 직원팀장회의, 문화소통위원회
- 경영평가, 인권영향평가, 차별·혐오표현 설문조사



지역사회

지평은 법률교육과 상담 등 지역 법률 수요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법률교육과 법률 상담 진행
-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레얼학교 후원
-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 빵을 구워 나누는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참여
- 지역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 서대문경찰서 협약, 서대문구 협력과제 발굴, 지역상권 활성화



고객

지평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통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 세미나 또는 웨비나를 활용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구성원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 판례평석, 칼럼 등을 모아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지평의 활동을 더 자세히 알리고, 지평 내부의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하며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 유튜브, 고객의견 수렴(Contact us)
- 세미나, 웨비나 및 간행물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참여·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4명의 전문가가 총 173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19년에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7

중요성 평가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중요 토픽을 선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내부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요성 평가(Material Test)를 실시하였습니다.

토픽 목록의 작성

- GRI Standards 지표 검토
- 해외 로펌, 국내 유사업종의 보고서 벤치마킹
- 2019 지속가능성보고서 쟁점 반영
- 지평 경영위원회의 메시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 분석

중요성 평가

- 내부구성원(구성원번호사, 소속번호사, 고문·전문위원·PL, 직원) 중요도 설문조사 (기간 : 2020. 5. 10. ~ 12.)
- 이해관계자(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관심사 설문조사 (기간 : 2020. 5. 10. ~ 12.)
- 미디어(2020년도 보도 602건) 분석
- 지평 경영위원회 메시지 분석

중요 토픽 선정

- 내부구성원 설문조사 결과에 경영위원회 메시지 분석 결과를 가중 반영하여 내부 중요도 도출
- 이해관계자별로 설문조사 결과를 가중하고 미디어 분석 결과를 가중하여 이해관계자 관심사 도출
- 내부 중요도와 이해관계자 관심사가 높은 토픽 9개 선정

지평은 20개 토픽에 대해 중요성 평가를 통해 2020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토픽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요 토픽에 대한 내부 검토 후 2020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9개의 중요 토픽을 지평의 비전을 주제로 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중요 토픽

C1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현, 내재화	C11	소셜벤처 지원,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C2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C12	그린오피스 정책(용수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종이 등 폐기물 감소)
C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경영활동 반영	C13	환경 관련 NGO, 소셜벤처 법률지원
C4	법조윤리의 준수	C14	구성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 다양성과 기회균등
C5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C15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C6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C16	구성원의 안전 및 보건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C7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C17	일과 가정의 양립(적정 근로시간, 출산·육아 지원)
C8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지지	C18	구성원 역량 개발 및 교육
C9	경제적 성과 창출(수익성 제고)	C19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C10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C20	법치주의 및 법조사회 기여(장학금, 인턴십, 세미나, 협회활동)

